

6·25전쟁 55주년 回顧와 展望

程 土 雄

(육군사관학교 교수)

1. 머 리 말
2. 世界戰爭史上 중요한 里程碑
3. 20세기 후반기 國際政治에 미친 영향
4. 작전경과와 敎訓
5. 맺 음 말

1. 머 리 말

금년은 6·25전쟁이 발발한지 반세기를 넘어 55년째 되는 해이다. 그 동안 6·25전쟁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냉전적인 思考의 틀 내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東西 冷戰시대가 시작되면서 최초로 일어난 전쟁이자 이 전쟁 이후 냉전시대는 더욱 굳혀져 오래 갔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1991년 소련 해체와 함께 냉전시대가 종식된 이후에는 객관적이고 균형적인 시각으로 전쟁을 바라보려는 새로운 노력들이 펼쳐졌다. 주요 참전국 정부들이 중요한 비밀자료들을 공개하고 국제적인 학술교류를 활발하게

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면서 오늘날까지 6·25전쟁에 관한 중요한 사실들은 대략 밝혀질 만큼 밝혀지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전쟁원인과 각국의 참전 동기 그리고 전쟁 수행 및 영향에 대하여 다양한 해석들이 속출하고 학술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이것은 현 시대가 세계적 차원에서는 탈냉전시대라고 하지만 한반도 주변 정세는 아직도 냉전 기류가 여전히 흐르는 데서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이고 최소한 過渡期 단계에서 흔히 일어나는 전통적인 관점과 새로운 관점이 혼재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여러 가지 가설과 학설들을 구분하거나 또는 주요 쟁점에 끼어들어 시비를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 그 대신에 전쟁이 일어난 지 이미 반세기가 지났고 또한 세기가 바뀐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보다 넓은 시각에서 즉 6·25전쟁을 세계 역사와 전쟁사의 큰 흐름 속에 던져놓고 그 전쟁의 의의를 찾고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한 시도로 출발한 것이다. 6·25전쟁은 世界戰爭史에서 어떤 중요성을 갖는가? 20세기 후반기 이후 국제정치에 어떤 결과와 영향을 주었는가? 그 전쟁으로부터 어떤 군사적 교훈을 얻었는가? 등에 관하여 회고하고 전망해보는 글이다.

2. 世界戰爭史上 중요한 里程標

(1) 총력전 시대에서 制限戰爭 시대로의 전환점

6·25전쟁은 20세기를 시간적으로 정확히 둘로 나눈 1950년에 벌어진 전쟁으로서 세계전쟁사에 중요한 轉換點(turning point)을 이루었다. 20세기 전반기에 전쟁 양상은 두 차례나 세계대전을 치렀던 總力戰의 시대였으나 후반기에는 6·25전쟁부터 시작하여 局地戰과 制限戰의 시대가 펼쳐졌다. 여기서 제한전이란 용어는 強大國 관점에서 표현한 것이다. 강대국들은 전

반기와 달리 후반기에는 자기들끼리 직접 전쟁으로 자웅을 겨루지 않았다. 그 대신에 그들은 전쟁을 하더라도 약소국을 상대로 하거나 또는 약소국끼리의 전쟁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참여함으로써 총력전이 아닌 제한전쟁을 하였다. 6·25전쟁은 강대국들에게 바로 이런 흐름으로 방향을 잡아주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큰 전쟁이었다.

6·25전쟁이 터졌을 때 사람들은 핵무기로 제2차 세계대전을 끝낸 지 불과 5년 밖에 안 된 시점에서 일어난 이 전쟁에 대하여 혹시 제3차 세계대전의 서막이 아닌가 하고 상당히 우려를 하였었다. 미국과 소련 두 超強大國이 세계를 둘로 나누고 곧 결판을 벌일 것 같은 불안 속에서 살았던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는 소련 위성국인 북한이 미국 영향권 속의 남한을 친것은 실로 심각한 사건으로서 미국과 소련간 전쟁의 시작 또는 최소한 전초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 역사적으로 어느 시대나 강대국들이 세계 패권을 놓고 경쟁을 벌이다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에 큰 전쟁으로 폭발하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미국과 소련은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이해관계로 6·25전쟁에 직접적으로 관여했으면서도 자기들끼리 전면전을 하는 단계까지 나가지는 않았다. 그것은 결코 서로 약속했거나 어떤 규범 같은 것에 매였기 때문이 아니었다. 서로 전략이 다르고 서로 상대에 대한 견제, 탐색, 두려움 등이 함께 작용했으며 그 결과 미묘한 折衷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6·25전쟁이 터졌을 때 미국은 북한군 침략은 첫째 소련이 획책하여 일어난 것이고 둘째 유럽 공격을 위한 陽動作戰이라고 예단하였다. 이 판단에 의거 미국은 한국군을 지원하기로 신속히 결정하고 원정군을 보냈다. 전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공산측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미국의 첫 번째 판단은 아주 정확하지 않더라도 상당히 적중했음을 알 수 있다. 김일성이 스탈린(Joseph Stalin)으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고 침략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번째 판단은 사실상 지나친 우려였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아직까지 당시 소련의 정책이 서유럽 공격을 준비하였고 미국의 관심

을 탄 데로 돌리기 위해서 한반도에서 전쟁을 시작했다는 假說을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¹⁾

여하튼 미국과 서유럽은 6·25전쟁이 터지고 난 뒤에 획기적으로 정책 변화를 시도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중점을 둔 경제재건 정책을 재검토하고 그 대신에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지역을 재무장하여 방어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에 새로운 중점을 두고 박차를 가했다. 전쟁은 아시아에서 일어났지만 소련의 서유럽 공격 가능성을 더 우려한데서 나온 정책 변화였다. 동시에 한반도에서는 공산군 침략을 격퇴하고 소련의 기도를 좌절시켜야 하겠지만 소련의 陽動作戰일지도 모르니 너무 깊이 빠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기본 정책으로 삼았다.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서유럽 우선 정책은 제2차 세계대전 때부터 적용한 것으로서 6·25전쟁 때도 그대로 이어진 것이다. 바로 이런 기본 정책 때문에 미국은 한반도에서 철저히 제한전쟁을 하였다. 만일 당시 분위기에서 공산군 침략이 한반도가 아닌 서유럽 어느 지역 예를 들어 독일에서 일어났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미국 정책으로만 가정해보면 미국과 소련 간에 전면전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많았다고 말할 수 있다.

1950년 10월 하순 중국군이 참전한 이후 6·25전쟁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돌변했다. 중국군 인해전술에 밀려 국군과 미군은 크게 패배하는 위기에 봉착하였다. 이 위기에서도 미국은 중국 또는 소련과의 全面戰을 회피해야 한다는 정책을 고수하였다. 그리하여 군사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다 쓰지 않고 특별히 통제하면서 매우 어렵게 군사작전을 하였다. 중국군이 참전한 뒤 미국 정부는 6·25전쟁에 대한 목표를 승리 대신에 협상으로 바꾸고 적절한 선에서 停戰을 맺는 것을 추구하였다.

한국에서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미군들 입장에서 볼 때 미국 정부 정책은 마치 한 팔을 등 뒤에 묶어 놓은 채 싸우라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었기에

1) Stanley Sandler, *The Korean War: No Victors, No Vanquished* (Lexington, Kentucky: The University Press of Kentucky, 1999), pp. 266-267.

그들은 불만이 많았다. 최고사령관 맥아더(Douglas MacArthur)는 그와 같은 미국정부의 전쟁정책을 노골적으로 즐기게 비판하다가 그만 불명예스럽게 해임되고 말았다.

미국 정부는 적 항공기가 만주 지역에서 날아오는 것을 발견해도 미 공군은 만주 “성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시하였고 중국군의 무시무시한 人海戰術로 미군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어도 원자탄 사용을 고려하지 않았다. 그리고 작전 범위를 한반도 내로 국한시킨 작전 자체마저 중국군을 완전히 격멸하거나 압록강 밖으로 몰아내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았다. 미국 정책의 저변에는 언제나 한반도에 너무 많은 미군 병력과 戰力을 투입시키게 되면 상대적으로 서유럽 방비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논리가 변함없이 깔려 있었다.

한편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은 공산 측에서도 6·25전쟁에 전력을 다 쏟아 붓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소련은 북한군 침략 계획에 깊이 관여하였지만 막상 전쟁 중에는 철저히 발뺌하였다. 소련의 입장은 이미 미국이 뛰어난 마당에 그들이 나섰다가는 미국과 전면전을 각오해야 하는데 아직 그럴만한 자신감이나 준비가 결여되어 있는 상태에 있었다. 소련은 중국이 북한 지원을 결정하고 지상군을 투입했을 때 공군지원을 약속했다가 슬쩍 빠져나갔으며 나중에 1951년 이후에야 공군 지원을 하였다. 이때도 소련은 조종사 복장을 중국군 군복으로 입힐 정도로 철저히 위장함으로써 미국에 대하여 그들 개입 사실을 숨기려 무진장 애를 썼다. 군사작전 목적의 위장이 아니고 미국과의 전면전 가능성 예방을 위한 위장이었다. 그들은 “미그기 회랑” 남쪽으로 항공기를 내려 보내지 않았고 유엔군 탄약 및 보급품 추진 차량들에 대한 폭격 작전 같은 것도 하지 않았다. 또한 바다에서도 유엔군 선박들이 남한 주요 항구에 들어오는 것을 航空機로 공격하거나 潛水艦으로 공격하는 형태의 작전을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 만일 낙동강 전투가 벌어지는 동안 부산으로 들어오는 유엔군 선박들을 잠수함으로 공격했다면 유엔군은 참으로 낙동강에서 버티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와 같이 미국과 소련은 양쪽 다 서로 약속하지 않았는데도 한반도에서 전면전을 원하지 않았고 그것을 기본 정책으로 삼았다. 그리고 여러 차례 우여곡절을 겪기는 하지만 그 기본 정책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사작전을 하고 정전협정을 맺을 때까지 제한전쟁을 수행하였다.

(2) 냉전시대에 在來式 전쟁 개막

6·25전쟁이 일어난 1950년은 많은 사람들이 미래전쟁에서는 히로시마에 서처럼 버섯구름을 보고 어떤 도시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 속에서 지내던 때였다. 다만 극소수의 사람들은 핵무기 공포 속에서 어느 정부도 감히 군사적 모험을 하지 않게 됨으로써 오히려 전쟁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하였다. 어느 쪽 전망이든지 여하튼 당시 세계는 핵무기의 그림자 속에 갇혀 있었고 재래식 地上戰은 無用之物이 되고 말 것이라는 믿음이 널리 깔려 있었다.

6·25전쟁은 북한 지상군이 재래식 방법으로 38선 이남을 돌파하면서 시작되었으나 과연 이 전쟁에서 핵무기가 사용될 것인지 여부가 중요한 실험으로 남게 되었다. 당시 핵 보유국은 미국과 소련 두 나라 뿐이었다. 이 전쟁에서 두 나라가 직접 대결한 상황은 아니지만 상황변화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과 위험이 전쟁 중 계속 남아 있었다.

특히 미국은 6·25전쟁에서 거의 主役을 맡아 전쟁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마다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하곤 하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적국에 대한 견제와 위협의 방법으로서 사용 가능성을 언급했을 뿐 진짜로 심각하게 검토하지는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 정책부서 내에서의 논의는 언제나 만일 核武器를 사용해야 할 상황이 온다면 그 장소는 유럽이지 아시아는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중국군이 개입하자 유엔군 최고 사령관이었던 맥아더 장군은 중국 본토

를 공격하고 원자탄을 사용해야 한다고 미국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였다. 트루만(Harry S. Truman) 행정부의 기본 정책은 한국에서 핵무기를 사용하는 단계까지 가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었으나 당시 유엔군이 최대 위기에 처하였고 소련과 중국의 眞意를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그것이 절대 불변의 원칙이 될 수 없었다. 전략적으로도 사용 가능한 수단 가운데 가장 강력한 수단을 제외시킨다고 敵國에게 표명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1950년 11월 말 기자회견석상에서 트루만 대통령은 본의 아니게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중국군에게 크게 패배를 당한 시점에서 이루어진 이 언급은 적국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의 서유럽 우방국들을 크게 긴장시켰다. 즉각적으로 영국 수상 애틀리(Clement Attlee)는 워싱턴으로 날아가 트루만 대통령을 만났다. 頂上會談에서 미국과 영국은 중국에 대한 입장 차이를 해소하지는 못했으나 양국 공동의 핵심전략을 재확인하였다. 즉 서유럽 우선의 전략을 지키고 그에 따라 중국과 전면전으로 가는 것은 회피한다는 것이었다.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한 애틀리의 우려에 대하여 트루만은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迂廻的으로 대답했는데 사실상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암시하는 대답이었다.²⁾

영국을 대표로 한 서유럽 국가들은 6·25전쟁이 중국과의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서 바짝 경계하였다. 소련에 대한 서유럽 방어가 弱化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 영국은 유엔군이 38선을 넘어 북진 작전을 할 때 최대한 신중을 기할 것을 줄기차게 주문하였으며 확전주의자였던 맥아더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애틀리는 휴전 협상을 모색하기를 강력히 주장하고 심지어 협상 대가로 臺灣 대신에 中國 정부를 공식 승인하고 중국을 유엔에 가입시키자는 제안까지 내놓았다.

트루만 행정부는 영국 정부의 그런 宥和主義적인 입장을 받아들일 수는

2) David Rees, *Korea: The Limited War* (New York: St. Martin's Press, 1964), pp. 168-170; James F. Schnabel, *Policy and Direction: The First Year*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2), pp. 289-293.

없었다. 하지만 6·25전쟁을 결국 협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였다. 소련과의 전면전 시나리오에서 한국이란 나라는 어디까지나 작은 졸(pawn)에 불과하므로 핵무기는 서유럽에서 전쟁이 벌어졌을 때 결정적으로 사용해야 하고 한국에서는 재래식 전쟁으로 싸우다가 그런대로 체면을 유지하는 적절한 선에서 협상으로 타결 짓는 것을 목표로 확실히 정책 방향을 잡았다.

중국군에 의한 몇 차례 공세가 좌절된 후에 드디어 1951년 7월 휴전 협상이 개막되었다. 그러나 협상은 쉽게 타결되지 않았다. 공산주의자들은 많은 양보를 끌어내기 위하여 일부러 시간을 끌고 그때마다 유엔군은 군사적 압박을 가하는 이런 과정이 반복되었다. 1952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 공약 가운데 하나로서 6·25전쟁을 早期에 종식시키겠다고 선언한 아이젠하워(Dwight D. Eisenhower)는 당선 후에도 뾰족한 대책이 없자 공산주의자들에게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적을 향하여 협상 테이블에서 평화를 위한 진정한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핵무기 사용을 고려하겠다고 언급했다. 때마침 스탈린이 사망하자 협상은 급진전되고 1953년 7월 휴전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소련의 새 지도부는 권력 승계를 확실히 장악해야 하는 마당에서 아이젠하워의 조기 협상 타결 요구를 쉽게 받아들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3) 유엔의 이름으로 싸운 최초의 전쟁

6·25전쟁은 유엔 역사상 처음으로 유엔군을 편성하여 국지전에서 侵略軍을 물리치고 유엔의 권위를 크게 부각시키는데 성공한 전쟁이었다. 유엔군이 나서서 침략군을 격퇴시킨 전쟁은 지금까지 6·25전쟁과 걸프전쟁 두 차례 밖에 없었다. 두 전쟁 다 유엔군은 미국 군대 위주로 편성되었고 미군 장성이 최고 사령관직을 맡았다.

유엔군은 미군을 포함하여 21개국 군대로 편성되었고 戰鬥部隊를 파견한 나라가 16개국 그리고 의료지원단만 파견한 나라가 5개국이었다. 이외에도 병력 대신에 물자 지원만 한 나라가 20개국에 이르렀다.

미국 외에 다른 나라들이 보낸 병력은 소규모였으나 유엔군을 편성할 때 여러 국가가 동참한 사실 자체가 상징적이고 정치적인 의의가 크다고 말할 수 있다. 유엔이 탄생한지 얼마 안된 시점에서 이와 같은 국제적 노력은 많은 나라들이 세계평화를 위한 유엔헌장을 따르겠다는 뜻으로서 유엔지원을 주도한 미국의 입장을 크게 강화시켰다.³⁾

미국이 유엔을 활용하고 유엔 명분으로 참전하게 된 배경에는 당시 소련의 어설픈 행동으로 쉽게 이루어진 측면이 있었다. 미국의 발의로 유엔 安保理 소집 요구가 있자 소련은 안보리 회의 자체를 무산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참석을 거부하였다. 이때 미국은 오히려 역으로 소련의 불참을 이용해서 안보리에서 유엔 지원 결의안을 쉽게 통과시켰다. 만일 소련이 참석하여 거부권을 행사했다면 유엔 지원이 상당한 수준의 진통을 겪었을 가능성이 있었다.

유엔군의 전쟁 지도에 대해서는 유엔이 미국 정부에 모든 것을 위임함으로써 미국 대통령은 지휘계통상 최고 정점에 있었다. 주요 정책과 전략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안보정책 부서에서 수립하였다. 미 국무부, 국방부, 합참본부 등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국가안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하였다. 미국 정부는 주요 결정사항을 다른 參戰國들에게 통보는 했으나 그들과 진정한 검토를 하는 과정을 밟지는 않았다. 이것은 제2차 세계 대전 중에 연합국 대표들이 대등한 위치에서 전략 방향을 논의하고 결정했던 방식과는 판이했다고 할 수 있다.

전투부대를 파견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한국에서 공산군과의 싸움에서 미국만큼 적극적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모두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차원에서

3) 전쟁기념사업회, 『한국전쟁사 제5권 중공군 개입과 새로운 전쟁』(서울: 전쟁기념사업회, 1992), 581-582쪽.

미국의 주도적 역할을 인정하고 협조하였다. 서유럽 국들은 6·25전쟁이 혹시 잘못되어 핵전쟁으로 확대되어서는 안된다는 두려움을 가졌지만 언젠가 다가올지도 모르는 소련의 서유럽 공격과 제3차 세계대전을 예방하기 위해서 미국에게 의존하고 협력하지 않을 수 없었다. 6·25전쟁 때 싸운 유엔군은 반공십자군이였다. 그들은 결국 한국을 통일시키지는 못했지만 유엔 깃발 아래 굳게 결속하고 공산 침략을 물리침으로써 反共 국가인 大韓民國을 살리는데 성공했다.

3. 20세기 후반기 國際政治에 미친 영향

6·25전쟁은 세계적으로 동서 냉전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남북한 분단을 固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세계는 냉전 구도 속에서 상호 대립과 불신으로 고도의 긴장 상태가 형성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세기 후반기에 강대국들은 전반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평화로운 시대, 즉 상호간에 전쟁이 없는 시대를 누렸다.

강대국들은 어느 나라도 6·25전쟁 그 자체에서는 승리하지 못했다. 그러나 전면전을 피하고 제한전쟁이란 실험을 통해서 각각 체면과 건재를 지키고 약소국들에 대한 영향권을 유지하는 데는 성공하였다.

한국은 제2차 세계대전 후 강대국들에게 제한전쟁 實驗場과 같았다. 제한전쟁을 통해서 강대국들은 승리하지는 못했으나 각각 지지 않은 것으로 체면치레를 하고 영향권을 유지하는데 성공하였다. 특히 핵전과 제3차 세계 대전으로 확전 가능성이 있었던 전쟁에서 절묘한 선택과 타협을 통해서 아슬아슬한 위기를 넘겼다. 물론 6·25전쟁 후에도 강대국들은 핵전과 전면전 가능성에 대비하여 계속 군사력을 증강시켰으며 1962년 쿠바 미사일 사태 때는 또 다시 큰 위기를 겪게 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일차적으로

6·25전쟁에서 자제하고 전면전과 핵전 위기를 벗어난 것은 강대국들에게 매우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 세계는 핵전 예방을 위하여 꾸준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오늘날 사람들은 1950년대에 느꼈던 곧 핵전이 터질 것 같은 대 공포로부터는 벗어나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6·25전쟁에서 강대국들은 제한전쟁을 하고 그 결과 無勝負로 끝냈지만 그들에게 특히 한반도 주변의 강대국들에게 돌아온 손익계산서를 살펴보면 결코 무승부는 아니었다.

어느 나라보다도 먼저 미국에게 돌아온 이익은 지대하였다. 미국이 6·25전쟁에 주저하지 않고 뛰어든 것은 압권이었다. 과거 양차 세계대전에서 뒤늦게 참여한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었다. 미국은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자유주의 세계를 이끄는 국가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同盟國들로부터 큰 신뢰와 지지를 받았다. 그 후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를 강화, 서유럽을 재무장하고 아시아 여러 국가와도 안전보장조약을 체결, 동맹 체제를 공고히 하였다. 미국은 유럽과 아시아에서 소련 세력을 막아내는 체제를 강화하고 자국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사실상 6·25전쟁은 미소냉전에서 미국의 승리를 보장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미국은 국내적으로도 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거의 없었다. 총력전을 위한 식량 배급이나 언론 검열 같은 통제가 없었고 자동차 생산도 줄지 않았다. 6·25전쟁으로 미국인들은 세금 부담이 늘어났으나 대체로 경제에 활력이 붙은 데 대하여 만족해했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전쟁을 지지하고 징집제도 부활과 재무장을 받아들였다. 미국에서 징집제도는 그 후 20여 년간 유지되었다.

만일 6·25전쟁이 없었다면 미국은 대폭적인 병력 감축으로 유럽과 아시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규모를 더 줄여야 했었다. 6·25전쟁을 계기로 미국은 핵 우세 정책을 유지함과 동시에 在來式 軍事力도 강화하는 정책으로 돌아설 수 있었다. 6·25전쟁이 발발한 지 1년 만에 미국은 현역 585,000명을 징집하고 예비역과 주방위군 806,000명을 소집하였다.⁴⁾

한편 6·25전쟁에서 군사적으로 승리한 나라는 없지만 정치적으로 가장 재미 본 나라는 중국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1949년 국공내전에서 승리하고 공산당 정권이 수립된 지 1년밖에 안 된 시점에서 6·25전쟁에 뛰어든 것은 대단한 결단이었다. 그들 군대는 미군을 포함한 유엔군과 맞싸워 북한을 살려냄으로써 온 세계에 힘을 과시하고 국제적 위상을 크게 높였다. 비록 형편없는 기술 수준의 군대로서 모택동의 아들을 포함하여 많은 인명 손실이 따랐지만 이 전쟁 결과 중국은 강대국 班列에 끼게 되었다. 19세기 말 청일전쟁에서 패배하고 그 후 계속해서 일본군에게 짓밟혀온 중국이 공산정권으로 통일한 다음에 그들 군대가 일약 세계 최강대국 미국 군대와 맞서 싸운 사실만으로도 이제 중국은 세계정치에서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나라가 된 것이다.

공산권 내에서도 宗主國 소련은 6·25전쟁에서 몸을 사린데 반하여 중국이 과감한 행동을 취한 것을 인상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결국 전후에 소련 지도력은 흔들리기 시작하였고 상대적으로 중국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중국과 소련은 관계가 악화되면서 전통적인 국경분쟁까지 재발하고 소련의 위상은 1960년대 이후 크게 기울기 시작했다. 한편 중국은 1970년대에 미국 대통령 닉슨이 북경을 방문한 이후에는 확실히 세계 강대국으로서 자리를 차지하고 오늘날은 세계정치 무대에서 미국 다음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만큼 최강대국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6·25전쟁 덕분에 재미 본 또 다른 나라는 일본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敗戰國으로서 미군 점령 하에 놓여 있었던 일본에게 6·25전쟁 발발은 조기에 패전국 명예를 벗어나도록 하는 천우신조와 같았다. 점령국이었던 미국은 미소 냉전 상황에서 6·25전쟁 발발을 계기로 일본에 대한 정책을 180도 바꾸어 일본과 정상화를 서두르고 일본의 경제 재건을 최대 지원

4) Geoffrey Parker, edit., *The Cambridge Illustrated History of Warfar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1995), p. 341.

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리하여 일본으로서는 절망적이었던 상황이 완전히 희망적인 상황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미국은 과거의 적대국 일본을 감독하는 것보다 동북아시아에서 소련 공산세력의 팽창을 막는 당면 과제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일본을 장래 파트너로 삼기로 하고 일본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나선 것이다. 미국은 일본 점령 6년만인 1951년 9월 샌프란시스코에서 美日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일본의 주권을 복권시킴과 동시에 상호안전보장조약으로 손을 잡았다. 결과적으로 일본은 패전국이 통상 겪어야 할 굴욕과 치욕을 최단 기간 내에 졸업하고 일약 세계최강대국 미국과 동맹을 맺고 오늘날 經濟大國으로 성장하기까지 승승장구하게 되었는데 바로 그런 재건의 시대를 열어준 계기는 6·25전쟁에서 마련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⁵⁾

이와 같이 6·25전쟁은 한반도 주위의 4대 강대국에게 소련의 정치적 입지와 영향력이 약화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손해 없이 끝난 전쟁이었다. 그들 경우에는 여러 가지 득실을 고려하여 제한전쟁을 했었기에 손해 보지 않는 전쟁을 한 셈이다.

전쟁 당사국인 남한과 북한의 경우에도 6·25전쟁은 남북 간에 領土 변화나 體制 변화 없이 그리고 지도자까지 달라지지 않은 채 그야말로 승자도 패자도 없이 끝난 전쟁이었다. 그러나 진정한 패자는 한민족이었다. 3,000만 동포가 결코 제한전쟁 아닌 총력전에 동원되고 한민족 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수백만 명의 인명 피해와 전 국토와 재산 파괴를 당하였고 전쟁으로 말미암아 민족의 희망인 통일은 물거품이 되었다.⁶⁾

1945년 한국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연합군 도움으로 식민지 상태에서 벗어났으나 한국인들 의사와는 관계없이 순전히 연합군 이해관계에

5) 전쟁기념사업회, 『한국전쟁사 제6권 전쟁의 영향』(서울: 전쟁기념사업회, 1992), 499-549쪽.

6) To-Woong Chung, "The Impact of the Korean War on the Republic of Korea," in Mark F. Wilkinson, edit., *The Korean War at Fifty* (Lexington, Virginia: Virginia Military Institute, 2004), pp. 223-226.

의하여 국토 분단의 비극을 겪게 되었다. 여기서 전쟁의 불씨는 생겼다. 분단 이전까지 한국은 동일한 언어와 문화를 바탕으로 후삼국을 통일한 고려 시대 이래 1,000여 년 동안 통일국가의 명맥을 유지해온 나라였다. 강제 분단과 그 후 치른 3년 동안 동족상잔의 비참한 전쟁은 결과적으로 한국 역사에 새로운 ‘二國시대’를 가져왔다.

전쟁 중 전 국토 구석구석이 전장이 되었으며 남한 수도 서울은 무려 네 차례나 주인이 바뀌었고 북한 수도 평양도 유엔군과 국군에게 함락된 적이 있었다. 전장에서 제외된 곳은 부산교두보 밖에 없었다. 북한 땅은 유엔군과 국군이 점령한 기간은 불과 2개월밖에 안되었지만 파괴는 더 당했다. 일방적으로 制空權을 가졌던 유엔군이 3년 내내 북한 상공에서부터 폭격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전선이 교착되고 협상을 벌였던 2년 동안에 북한은 더 큰 파괴를 당했다.⁷⁾

전후 나라 발전에 미친 영향으로 볼 때 6·25전쟁에서 가장 큰 敗者는 북한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전후 복구사업과 경제회복 속도에 있어서 1950년대에는 북한이 남한보다 앞섰었다. 당시 북한은 수력발전소와 제법 숙련된 노동자들 덕분에 유리했었다. 그러나 김일성 독재와 우상화 정책과 이른바 主體思想은 북한을 김일성 숭배 종교 집단과 같은 이상한 나라 그리고 경제적 빈곤국으로 전락시켰다. 1960년대 말에 남북한 경제력은 역전되기 시작하고 1970년대 이후부터 점차 큰 차이가 나서 오늘날은 남한 1인 경제 소득이 북한 12인을 능가할 만큼 벌어졌다.

그러자 북한은 공작원들로 하여금 남한에 대하여 1983년 아웅산 폭파 사건과 같은 끔찍한 테러를 자행하고 비무장지역에서 땅굴을 파고 동해안에 잠수함을 침투시키는 등 도전적인 행동으로 위협을 일삼았다.

1990년대 후반기 이후 지금까지 북한은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으며 국제사회를 향하여 식량 원조를 호소하는 처지에 있다. 북한 정부는 食糧饑

7) Callum A. MacDonald, *Korea: The War before Vietnam* (New York: The Free Press, 1987), p. 258.

饑의 원인을 순전히 날씨 탓으로 돌리고 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같은 한반도 내에서 남쪽에서 농사가 연속 풍년인데 북쪽에서는 날씨 때문에 내리 흉년을 맞게 되었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우리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은 남침으로 6·25전쟁을 일으키고 그 후 오늘날까지 정치적으로는 김일성과 김정일 부자 독재정권을 공고히 하는 데는 성공적이었는지 몰라도 경제적으로는 6·25전쟁 전보다도 더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게 됨으로써 완전히 실패한 나라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대조적으로 남한은 전후 55년 동안에 세계적으로 손꼽을 만큼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룸으로써 오늘날 GDP(국내총생산) 기준으로 세계 12위의 경제력을 갖춘 국가가 되었다. 남한 경제는 해외 시장에서 자동차와 전자제품의 경우 일본과 경쟁을 벌이고 과거 敵性國이었던 중국과 러시아와도 외교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주요 교역국이 될 정도로 성장했다. 이러한 남북한 차이는 극명히 공산주의의 실패와 자본주의의 승리를 증명하는 것이다.

남한의 경우 6·25전쟁은 엄청난 피해에도 불구하고 결코 헛되이 싸운 것이 아니었다. 공산주의와 싸워서 이기고 오늘날 경제 번영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북한은 기아선상에서 허덕이고 있고 공산주의 제국 소련은 이미 1991년에 붕괴하였다. 이 붕괴를 1950년에는 예측할 수 없었으나 미국을 비롯한 친서방국가들이 남한 지원을 결정한 순간부터 공산주의는 패배와 몰락의 길에 들어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4. 작전경과와 敎訓

6·25전쟁은 결코 단순한 전쟁이 아니었다. 3년간의 전쟁에서 몇 차례 전황을 바꾼 전환점(turning point)과 逆轉 드라마가 있었다. 첫 1년 중

처음 몇 개월 동안은 북한군이 그 다음에는 각각 유엔군과 중국군이 승리를 하였고, 마지막 2년 동안은 서로 승리가 아닌 협상을 목표로 싸우고 결국 무승부로 끝난 전쟁이었다. 전쟁 전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많은 극적이고 심각한 장면들이 생겼고 서로 수차례 攻防戰을 전개하고 무슨 약속이라도 한 듯이 무승부로 끝낸 전쟁이었다.

이 전쟁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과 같은 공중전이나 대규모 전차전은 없었다. 다만 현대전 전법으로는 미군에 의한 상륙작전과 공수작전이 있었다. 상륙작전은 인천에서 크게 성공했으나 원산에서는 실패하였으며 공수작전은 평양 북쪽과 서울 북쪽에서 있었으나 두 차례 다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주로 일어난 전투 양상은 한반도의 논밭과 산악지역에서 小部隊 단위로 싸우는 것이었다. 도로와 도로 주위에서 싸우고 대부분의 경우 유엔군과 한국군의 제공권 장악 때문에 중국군과 북한군은 산악과 도로 주위에서 맴돌았다. 유엔군은 기본적으로 공중 및 지상 화력에서 절대 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전선 상에서 벌어지는 소부대 전투에서는 그 利點을 최대한 확대하지 못했다. 6·25전쟁은 소부대 전투가 성행하는 전장에서는 보병 개개 병사들의 전투 기량과 정신력, 소부대 단위의 전술, 훈련, 리더십, 사기가 중요하다는 평범한 진리를 입증시켰다. 세계 초강대국 미국 군대는 핵무기와 최고 기술을 자랑하는 해·공군을 보유하고 있지만 보병 수준에서는 별 볼 일 없었으므로 초기 전투에서는 북한군도 상대하지 못하고 낙동강까지 밀리는 놀라운 장면을 보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은 최고의 기술 덕분에 체면을 지켰다. 초기에 보병들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싸우면서 고전하고 있을 때 만일 미군들이 제공권과 제해권을 갖고 있지 않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를 상상해보자. 반격의 전환점이 된 인천상륙작전을 실시해보지도 못하고 미군과 한국군은 한반도 밖으로 철군해야만 할 정도로 비참한 패배를 당했을지도 모른다. 해군력과 공군력에서는 일방적으로 우세를 유지하였으므로 미군은 압

록강 근처 “미그기 회랑”에서 한 때 제트기간 충돌이 벌어진 것 외에는 전쟁중 공중과 해상을 맘대로 누비고 다녔다.

미군은 기술적으로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도 戰場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이점을 갖고 있었다. 전장과는 관계없이 멀리 떨어진 안전한 곳에 있는 고국 땅이 폭격을 입을 지도 모른다는 염려를 할 필요가 없었다. 따라서 미군은 한반도 상공에서 空中爆擊을 거침없이 할 수 있었고 미국인들 가운데 맥아더를 위시하여 일부는 핵무기를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거침없이 하기도 했다. 그러나 참전 유엔군 가운데 제2차 세계대전 중 무지무지한 도시 폭격을 당해 본 경험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유럽 군인들은 6·25전쟁에서 전략폭격이 확대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 소련이 서유럽에 대하여 보복 폭격을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폭격을 한반도로 제한시켰던 데는 유럽인들의 그런 두려움이 크게 작용했었다.

첫 1년 동안 전쟁 양상은 제2차 세계대전식의 기동전을 보였다. 전선은 낙동강에서부터 압록강까지 마치 밀물 썰물처럼 큰 변동이 있었다. 그러나 1951년 7월 이후 2년 동안은 여러 가지로 제1차 세계대전 때와 양상이 비슷했다. 膠着된 전선에서 방어 위주의 塹壕戰과 포격전이 전개되고 공격은 제한된 땅을 획득하는 데만 목표를 두었다. 제1차 세계대전과 다른 것은 교착된 전선을 돌파하기 위하여 특별히 새로운 무기나 전술을 사용하지 않은 점이다.

6·25전쟁 중에 사용한 무기는 대부분이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사용했던 구식 무기였다. 신무기 가운데는 미그기 회랑에서 싸워 본 제트 전투기 외에 3.5인치 대전차 바주카포, 75미리 무반동총, 헬리콥터, 신형 모델 탱크, 방탄조끼 등이 있었지만 전법에 획기적 변화를 가져오거나 또는 승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은 없었다.

협상을 시작한 뒤부터 교착된 전선에서는 완전한 승리를 노리는 규모 큰 공격 계획 같은 것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단 전투원들은 크게 달

라진 것이 없이 열심히 싸웠다. 공산군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막강한 유엔군 화력 앞에서도 무모하다 싶을 정도로 용감하게 싸웠고 유엔군 보병들도 화력에만 의존한 것이 아니고 적이 주로 사용하는 夜間戰鬥와 인해전술에 맞서 용감하게 싸웠다. 서로 지키고 있는 주요 고지나 진지를 내줄 수 없고 조금도 패배를 인정할 수 없는 입장에서 싸웠기 때문에 전투의 치열한 정도는 첫 1년과 비교해 볼 때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다. 덕분에 전쟁 끝 무렵에 양쪽 군대 모두 전쟁을 시작했을 때보다 질적으로 훨씬 우수한 군대로 변모했다.

6·25전쟁에서 우리는 전쟁의 원칙 가운데 무엇보다도 먼저 奇襲의 중요성을 재확인할 수 있다. 획기적 전환점은 모두 다 기습 달성을 통해서 마련됨으로써 이 전쟁은 기습의 연속 드라마와 같았다.

첫 번째 기습은 무엇보다도 먼저 남침 당일의 기습이었다. 선전포고 없이 6월 25일 일요일 새벽 38선 전 지역에서 북한군 공격은 한국군에게 완전한 기습이었다. 이 기습 성공 요인으로 우리는 북한군의 철저한 보안 유지와 기도비닉을 높이 평가해야 하겠으나 똑같이 한국군 수뇌부의 무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얼마나 무능했는지는 하루 전에 전군 비상태세를 해제하고 남침 전야에 수뇌부 인사들이 육군회관 준공식 파티에서 주홍으로 곤드레만드레 되고 만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마치 일부러 북한군 기습 성공을 위해서 때맞추어 警戒態勢를 풀어 놓은 것 같은 상황을 회고하면서 당시 사단장이었던 이형근은 군 수뇌부 내에 적과 내통한 자가 있었다는 주장까지 했다.⁸⁾

북한군이 남침 사흘 만에 수도 서울을 점령할 때만 해도 김일성과 스탈린의 모험은 성공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미국 대통령 트루만은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하여 신속하게 결심하고 원정군 파견을 결정함으로써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다. 트루만은 의회의 승인 절차를 밟는 과정도 생략한 채 신속한 행동을 취하는 참으로 위대한 결단을 하였다. 이로써 공산주의자들은

8) 이형근, 『군번 1번의 외길 인생』(서울: 중앙일보사, 1993), 55쪽.

크게 기습을 당했다.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들 계산은 미국 정부의 즉각적인 반응으로 금방 무너져 버린 것이다. 蘇聯은 유엔의 6·25전쟁 개입을 방해하기 위해서 미국이 제의한 유엔 안보리 모임을 의도적으로 거부했지만 그것도 전략적으로 큰 실수였다. 미국은 역으로 소련 대표가 불참한 틈을 이용하여 유엔의 남한 지원 결정을 신속하게 이끌어냈다. 그리하여 미국은 유엔 이름으로 싸우고 세계적으로 보다 더 큰 지지를 받아 낼 수 있었다.

미국 군대와 많은 유엔회원국 군대가 나섬으로써 전쟁은 유엔 전쟁으로 그 성격이 변하였다. 따라서 쉽게 끝날 것 같았지만 무려 3년을 끌게 되었다. 6·25전쟁은 마치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와 같이 다 죽은 것 같다가도 회생하고 활기를 되찾았다가도 또 다시 새로운 병마에 시달리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지긋지긋하게 오래 갔다.

미군은 초기전투에서 기대 이하였다. 전투를 위한 훈련과 준비가 전혀 안된 상태에서 뛰어들었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다. 많은 피해를 입고서야 북한군쯤은 쉽게 물리칠 수 있다는 생각을 고치고 계속해서 병력을 증강시켰다. 다행히도 미 공군에 의한 공중폭격으로 북한군 지상군 진격은 상당히 둔화되었고 그 사이에 유엔군 지상군은 부산 교두보에 속속 집결할 수 있었다.

낙동강 선에서 유엔군의 전력은 북한군을 능가하기 시작하였다. 9월 15일 맥아더는 기습적으로 인천에 上陸作戰을 실시함으로써 일거에 전세를 역전시켰다. 반격을 개시, 거의 한 달 반 만에 낙동강에서부터 38선, 그리고 38선에서부터 압록강까지 한반도를 종단하고 북한군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눈앞에 두게 되었다.

그러나 10월 하순에 중국군이 압록강을 건너옴으로써 6·25전쟁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확대되었다. 중국군 개입은 유엔군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또 다른 큰 기습이었다. 북한군 침략에 유엔군이 나선 것이 공산군 측에게 기습이었다면 1950년 10월 하순 중국군이 뛰어들 것은 유엔군에게

완전한 기습으로서 6·25전쟁은 기습의 연속이었다.

유엔군은 승리를 목전에 둔 상태에서 중국군으로부터 기습 공격을 받고 거의 패닉 상태에 빠져 버렸다. 너무 방심한 상태에서 압록강 두만강을 향한 진격을 하다가 새로운 적으로부터 뜻밖의 기습을 당한 유엔군은 갈피를 잡지 못했다. 최고 사령관 맥아더 장군은 압록강 교량을 폭파하고 압록강 넘어 공중공격으로 작전을 확대하는 것을 원하였다. 그러나 미 합참본부는 중국군이 들어온 새로운 명확한 상황을 인지하고도 국경선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본래 훈령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주의를 주었다. 이런 상황에서 유엔군 전 부대는 전투를 하기보다는 38선 이남으로 퇴각하는데 여념이 없었다. 맥아더는 유엔군이 당하고 있는 패배에 대하여 분개하고 자신을 방어하는 주장을 했다. 워싱턴에서부터 자신에게 내리는 작전 제한 조치는 '전쟁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장애물'이라고 말하면서 불만을 토로하였다. 그리고 워싱턴을 향하여 승리를 위해서 중국 본토에 대하여 원자탄을 사용하든지 아니면 韓半島를 포기하든지 둘 중 하나를 결정하여 명확한 지침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트루만 행정부 입장에서는 두 가지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미국의 세계전략적인 차원에서 이제 한국에서는 協商을 모색해야 하고 그 대신에 가장 중요한 서유럽에 중점을 두는 기본 정책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런 견해 차이로 말미암아 트루만 대통령과 맥아더 사이는 악화되고 대통령은 결국 맥아더를 해임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미국의 6·25전쟁에 대한 정책 수준은 미 합참의장 브래들리(Omar N. Bradley)가 맥아더의 중국과의 전면전 건의에 대하여 '그것은 잘못된 장소와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적과의 잘못된 전쟁이다'고 한 언급에 잘 나타나 있다.⁹⁾ 소련과의 전면전에 대비해서 '유럽 제1주의' 전략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아시아에 주력하는 것은 소련을 이롭게 하는 잘못된 전략이란 것이다.

9) Geoffrey Parker, *The Cambridge Illustrated History of Warfare*, p. 344.

이와 같이 유엔군 측 지도부가 흔들리고 중국 본토는 폭격 받지 않는 안전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중국군은 氣高萬丈이었다. 그들은 계속 대 공세를 하고 1951년 1월에는 서울을 손쉽게 점령한데 이어서 유엔군을 한반도 밖으로 내쫓아낼 기세로 밀어붙였다. 유엔군과 한국군은 士氣가 극도로 떨어지며 최대의 위기에 봉착했다. 한국 국민들은 유엔군이 한국에서 일본으로 철군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이 무렵 다행히도 유엔군은 새로 부임한 미 제8군사령관 리지웨이(Matthew B. Ridgway) 장군의 뛰어난 지휘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리지웨이는 여러 가지로 획기적인 조치들을 통해서 패배주의의 깊은 수렁에 빠진 유엔군과 국군의 전투의지를 부활시키고 중국군에 맞서 싸우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유엔군은 거짓말처럼 되살아났다. 유엔군은 중국군 인해전술에 대하여 압도적으로 우세한 화력을 최대로 퍼붓고 反擊을 실시하여 지평리 전투에서부터 승리를 거두기 시작하고 이어서 1951년 3월 15일 서울을 재탈환하는데 성공하였다. 리지웨이는 6·25전쟁 중 최대 고비를 극복하는데 앞장섰었던 최고의 영웅이었다. 그는 맥아더처럼 본국 정부의 정책 방향을 비판하지 않고 무조건 정부정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대 노력하고 임무를 제대로 수행한 최고의 군인이었다. 상부의 전략적 결정이 자신의 작전 수행에 결코 좋지 못한 여건에서도 잘 싸우고 역으로 전장에서 전술적 승리를 함으로써 본국 정부 정책을 지켰다. 그는 미국정부의 전면전 아닌 제한전 정책을 충실히 따르고 한국에서 軍事的 목표로서 38선 이남을 확보하고 협상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낸 제한전쟁 명장이었다.

중국군은 6·25전쟁에 뛰어들어 6차례나 대공세를 감행하였다. 그러나 1951년 6월 결국 인해전술의 한계를 깨닫고 유엔에서 소련 대표를 통하여 협상을 제의하였다. 이렇게 공산군 측으로부터 협상 제의가 있자마자 유엔군 측은 기다렸다는 듯이 받아들임으로써 협상은 곧 개막되고 전쟁은 급변하였다.

공산군 측이 협상 제의를 했을 때 戰況은 그들에게 최악이었으므로 유엔군이 곧 바로 협상에 응하고 진격을 멈춘 것은 전략적으로 큰 과오였다는 비판도 있다. 물론 유엔군이 일단 튕겨보고 세차게 공격했다라면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을 쉽게 타결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당시 미국 정부는 정치적으로 협상에 빨리 나서야만 할 필요성이 있었다. 대통령과 대립적인 견해를 표명하면서 중국과 전면전을 주장한 맥아더를 해임한 조치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이 악화되어 있었던 점이 트루만 행정부에게 큰 부담이 돼 있었다.

1년 동안 전쟁을 치르고 난 뒤에 양쪽 다 완전한 승리는 어렵다고 판단한 부분에서 서로 일치했으므로 쉽게 협상은 시작될 수 있었다. 어느 한 쪽이 유리하거나 불리한 상태에서 조건부 협상을 제의하고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당시 전선 형성이 거의 38선에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양쪽 입장은 똑같이 대체로 戰爭 前 狀態를 유지하는 선에서 즉 이기지는 못했어도 지지 않은 것으로 만족하고 협상으로 전쟁을 끝내자는 식이었다.

이렇게 하여 1951년 7월 협상은 시작되었으나 기대와 달리 전쟁은 곧 끝나지 않고 무려 2년이나 더 끌었다. “전쟁에서 勝利 말고 다른 代案은 없다”고 한 맥아더의 경고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오래 끌었다. 협상 국면에서 공산주의자들은 시간은 자기들 편이라고 여기고 시간을 끌었다. 전선 변동은 없지만 교착상태에서도 상호간에 인명 살상 피해는 컸고 제1차 세계대전 참호전을 방불케 하는 전투가 계속되었다. 그러나 양쪽 다 교착된 전선을 타파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는 않았다.

완전한 승리를 목표로 하지 않고 협상을 하는 전쟁에서 목표는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體面 維持였다. 협상은 서로 체면 유지를 위해서 양보를 하지 않음으로써 난항에 난항을 거듭했다. 여러 협상 의제 가운데서도 捕虜 交換 문제가 가장 큰 난항이었다. 문제는 유엔군 포로수용소에 수용된 포로들 가운데 수많은 숫자가 고국으로 돌아가려 하지 않은 데서 발생했다. 결국 포로 각자 자유의사대로 귀환여부를 선택하게끔 하자는 유

엔군 측 제안을 공산군 측이 받아들이기까지 전쟁은 1년 반이나 더 걸렸다. 결과적으로 휴전 체결 40일 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석방시킨 反共捕虜 약 25,000명을 별도로 치더라도 휴전 체결 후에 이루어진 정식 포로 교환에서 공산군 포로 가운데 약 22,000명이 본국 송환을 거부하고 이에 비하여 유엔군 및 한국군 포로 가운데 거부한 숫자는 총 359명뿐이었다.¹⁰⁾ 故國을 버리는 포로 숫자가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난데서 공산 세계와 자유진영 세계간의 대립과 경쟁에서 공산 세계는 확실히 패배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로써 6·25전쟁은 군사적으로는 무승부로 끝났지만 동서간 냉전과 이념전에서는 공산측이 장차 패배할 것을 豫告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5. 맺 음 말

6·25전쟁은 냉전시대가 열리고 일어난 최초의 전쟁으로서 그 양상은 在來式 전쟁이었다. 핵무기를 보유한 미국은 이 전쟁에서 군사적으로 중국군에게 패배하는 상황에서도 자제하고 核武器를 사용하지 않았다. 이후 핵무기를 보유한 세계 강대국들은 핵전쟁으로 치달을 수 있는 위험 때문에 자기들끼리의 전면전을 잘 피해 왔고 다만 핵무기 사용 우려가 없는 곳에서는 재래식 방법으로 제한전쟁을 해 왔다. 전쟁은 정치적 해결을 위한 하나의 合理的 수단이라고 정의한 클라우제비츠의 이론은 이제 더 이상 강대국 상호간에는 통하지 않게 되었다.

미국은 6·25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전쟁의 범위와 성격을 결정하는 主導的 역할을 했다. 유엔군을 편성하여 참전하고 전장 범위를 한반도로 국한시키는 제한전쟁을 수행하고 미국은 유엔 깃발 아래 반공 십자군을

10) Walter G.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6), p. 515.

이끌고 한국을 통일시키지는 못했지만 공산 침략을 물리치고 대한민국을 살리는데 성공했다. 반면에 소련은 전쟁 준비 및 계획 단계에서 깊숙이 개입했으나 막상 미국이 나선 이후에는 모든 것을 숨기는데 급급했고 비밀리에 원격조종하려고만 했을 뿐 6·25전쟁에서 당당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미소 냉전에서 소련은 미국에게 기선을 빼앗기고 공산권 내에서 소련 지도력과 影響力은 상당 부분 손상을 입게 되었다.

전쟁을 일으켜 한반도의 공산 통일을 획책한 김일성과 스탈린의 모험은 확실히 실패로 끝났다. 전쟁 중에 반공포로가 수만 명이나 나온 사실은 공산주의의 沒落을 예고한 것이다. 소련은 서서히 쇠퇴하기 시작하고 결국 1991년에 몰락했고 북한은 마치 ‘은둔의 왕국’ 조선시대처럼 개방 개혁을 거부하고 이른바 ‘주체사상’이란 사이비이론으로 김일성 왕조를 꾸렸으나 세계적으로 최 빈곤국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3년의 전쟁 중에는 서로 아슬아슬한 고비를 넘기고 역전을 시키는 몇 차례 극적인 정치적 결정과 군사작전이 있었다. 대표적인 결정의 예로는 미국의 개입 그리고 중국의 개입이었으며 군사작전으로는 인천상륙작전을 들 수 있다. 이 3대 극적인 결정에서 모두 공통적인 성공 요인은 전통적인 전쟁의 원칙 가운데 중요한 “기습”의 원칙을 잘 적용한 점이다. 모두 공통적으로 적이 오산했거나 자만했거나 방심했던 틈을 노려서 기습을 함으로써 성공했다.

흔히들 6·25전쟁은 無勝負의 전쟁이었다고 말한다. 남북한 영토 변화나 체제 변화 없이 끝났고 양쪽 다 전쟁 전 지도자가 전쟁 후에도 그대로 유임했다. 말하자면 실패한 전쟁이 아니었다는 논리여서 정권 교체도 있을 수 없었다. 그러나 수백만 명의 인명을 앗아가고 전 국토를 파괴한 이 전쟁은 한민족 역사상 가장 큰 재앙이었다. 더구나 뒤 처리가 없이 즉 사과도 없고 용서도 없고 배상도 없고 전범자 처벌도 없이 끝났다. 전쟁 뒤에는 오직 민족의 한만 남아 있을 뿐이다. 정전 협정은 맺었지만 아직까지 平和協定을 맺지 않았다. 군사분계선 양쪽에 대치하고 있는 병력 규모도

전쟁이 끝난 지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 전혀 감축된 것이 없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6·25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이다.¹¹⁾

그렇다고 남북한 관계를 반드시 비관적으로만 보자는 것은 아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감정이 풀리듯 남북관계도 시간이 약이 될 수 있다. 단 부단한 관계개선을 통하여 상호 화해를 하고 여러 가지로 활발한 교류를 해야 하고 평화를 보장해야 한다. 그 후 양쪽 利害關係가 진정으로 일치할 때 한민족 역사에서 분단국가 시대를 접고 새로운 통일국가 시대를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어렴풋한 전망을 해본다.

(원고투고일 : 2005. 4. 20, 심사완료일 : 2005. 6. 4)

주제어 : 6·25전쟁, 제한전쟁, 유엔군, 중국군, 미국 정책

11) ‘끝나지 않은 전쟁’이란 제목으로 이루어진 대표적인 단행본으로는 리종일, 『끝나지 않은 전쟁: 한반도와 강대국 정치(1950-1954)』(서울: 도서출판 전예원, 1994)와 이병완, 『끝나지 않은 전쟁』(서울: 명성출판사, 1997)이 있다. 전자는 저자가 정치학자 입장에서 남북간 증오와 불신이 여전한 현실과 강대국이 개입하고 있는 정도도 전쟁 때와 그후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점을 크게 부각시키면서 다루었던 여러 편의 글들을 모은 것이며, 후자는 저자가 참전자로서 그리고 전 국방부전사편찬위원으로서 주로 군인들과 국민들을 향하여 실전 경험담과 함께 6·25전쟁의 교훈과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한 저서이다.

<ABSTRACT>

Retrospect and Prospect at the Fifty-fifth Anniversary of the Korean War

Chung, To-woong

It has been fifty-five years since the Korean War broke ou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widen the understanding of the war and illuminate its significanc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Twenty-First Century within the context of world military history. It will deal with the importance of the war in the history of warfare, the impact on world politics of the latter half of the Twentieth Century, and military lessons drawn from the war.

The Korean War was the first conventional war occurring during the Cold War. The United States did not use the nuclear bomb in this war. Thereafter the nuclear powers of the world have not fought any wars between them, but have carried out limited wars by conventional methods in which there was no possibility of nuclear collision.

The United States did not hesitate to intervene in the Korean War and played a major role directing the nature and scope of the war. Establishing the United Nations Forces in Korea, the United States carried out the war within the boundaries of the Korean peninsula. Leading the anti-communist crusade under the flag of the United Nations, the United States succeeded in repelling the communist aggression on the Republic of Korea, although it did not succeed in the unification of the country. The Korean War was the critical turning point for the United States in taking the initiative in the Cold War.

Kim Il Sung and Joseph Stalin's adventure of war in Korea certainly

ended in failure. The fact that tens of thousands of the communist prisoners of war rejected going back to their homeland was advance notice of the fall of communism. The Soviet Union began to decline and finally collapsed in 1991. North Korea has so far been as reluctant to reform and embrace the open-door policy as the 'Hermit Kingdom' *Choson*. It is one of the poorest countries in the world while it keeps up the regime of Kim Il Sung's dynasty based on the pseudo-philosophy called *Juche*.

During the three years of war there were many dramatic moments including the American involvement, the Chinese entry, and the landing operation at Inchon. All of these actions, from the aspect of military doctrine, had shown the importance of the principle of surprise, one of the most important principles of war.

The Korean War ended in a draw with no victors and no vanquished. However, it was the most traumatic disaster in Korean history resulting in millions of people killed with the entire territory demolished. After the war there were no action of apology, pardon, reparation, and punishment of war criminals, but a lasting regret in every corner of the country. The truce agreement has yet to bring about any peace treaty. The troops along the 38th parallel have not been reduced at all during the last half-century. For many reasons the Korean war is called an unfinished war.

Nevertheless there is no desperation at all about the futur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It is most desirable for both governments to ceaselessly try to improve their relationship, apologize to each other, make an active interchange in a variety of areas, and most importantly guarantee a mutual everlasting peace. Afterwards, when their interests meet, we might expect the future of Korea to enter a new era of unification instead of the present period of two separate countries.

Key Words : Korean War, Limited war, United Nations forces, Chinese army,
United States policy